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경남창원초, 행복계절학교

경남 창원초등학교(교장 박혜숙) 3학년 85명의 학생들은 한마음으로 12월 7일 굿네이버스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는 지난 11월 21일, 22일에 걸쳐 행복계절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된 '이웃사랑 자선바자회'의 성과로 마련됐다.

3학년 2학기 행복계절학교에서는 학기말 교과학습 진도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꿈·끼 발표회' 등을 통해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나눌 뿐만 아니라, '자선바자회', '학교사랑 런닝맨', '까나페 만들기' 등 아이들의 삶과 연계한 심화된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였다.

특히, '자선바자회'는 도덕 교과와 연계해서 풍부한 물질문명 속에서 성장해 가는 요즘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생활이 중요함을 알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해 기획·운영됐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주일 동안 재활용 가능한 혹은 사용하지 않은 각 가정의 물건들을 모으고, 스스로 물건의 가격을 정하여 활동방법을 계획한 후, 물건을 진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과 손들이 꼼꼼하게 체육관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구경하고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구입하였다.

재활용 가능한 자신의 책들을 기증한 3학년 김윤희 학생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해요", 하예빈 학생은 "앞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어요" 등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 2회 학기말에 확대 실시된 창원초등학교의 행복계절학교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앎을 실천할 장을 마련해주어 진정한 배움에 빠지도록 이끌기 위해 내년에도 발전할 예정이다.

김호기 기자 khk@

세계를 향해 열린 창! 미국 도서관 체험

경상남도교육청, 2016년 글로벌도서관독서문화체험 연수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16일 해외 선진도서관의 운영시스템, 문헌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체험하고 도서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도서관을 중심으로 탐방했다.

연수 참가자는 사서와 사서교사는 물론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도서관 업무를 수행해 온 우수 공무원 및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등 총 10명으로, 2016년 학교도서관 발전 유공 교육감 표창을 받은 초·중등 교사 2명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독서교육 업무 공적이 뚜렷하고 경남 독서교육발전을 위한 자기역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했다.

이들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버클리 대학도서관, 프레즈노 도서관, UCLA 도서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 중이며, 우수 독서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선진도서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특히 버클리와 UCLA도서관에는 한국학 전문도서관이 별도로 있어서 주제전문사서로서 한국사서들이 근무하며 한국을 미국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는데,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미국도서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미국도서관은 난민은 물론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독서를 활용한 창의적 활동, 방과 후 숙제 도움활동, 육아와 가족관계 도움활동 등 이용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프레즈노 도서관에는 수화강좌 개설 및 수화로 그림책 읽어주기 등 장애인들을 배려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인상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국의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을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마인드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만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공학체험관

경상남도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공학체험관 개관식 개최

경상남도특수교육원(원장 윤인숙)은 12월 16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공학적 호기심을 채워줄 '특수교육공학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국립특수교육원 및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 경상남도내 특수학교 교장 및 교사,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특수교육공학체험관의 첫걸음을 함께 했다.

특수교육공학체험관은 장애 특성에 따른 여러 가지 최신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보조공학체험영역, 체험을 통해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깨닫고 창의적 탐구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과학체험영역,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비행 드론과 주행로봇을 직접 조종해봄으로써 첨단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로봇과학체험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공학체험으로 학생들은 최신공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첨단 공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윤인숙 원장은 "평소에 공학기술을 경험하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공학체험관에서 다양한 공학 기기들을 마음껏 만지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공학기술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양, 제28회 함양교육상 시상식 개최

교육부문 정문상, 교육지원부문 신경태 함양교육상 수상

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옥)은 12월 15일 오후 함양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8회 함양교육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에는 임창호 함양군수, 임재구 함양군의회의장, 김흥식 함양문화원장, 권진현 전 함양교육장,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원)장, 관내 학교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내빈들과 정문상 수상자와 가족들, 그리고 신경태 수상자를 대신하여 아들 신인재 씨가 참석했다.

교육부문 수상자인 정문상 전 지곡초등학교장은 42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여 함양과학 및 컴퓨터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정년퇴임 후 함양선비문화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에 헌신하였으며, 함양향교 장의 및 함양유도회 활동을 통한 함양정신문화 계승에 진력한 공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리고 교육지원부문 신경태 수상자는 덕산수연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했는데, 관내 학교에 2015년부터 1천만 원 씩 장학금을 지급했고, 부인 조의금 5천만 원 전액을 함양군장학회에 기탁했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어 함양교육상을 수상했다.

김정옥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함양교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함양교육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년퇴직 후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강조하였다.

경남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젝트 해외인턴십 수료식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남지역 특성화고 51명을 대상으로 16일 호주 시드니 SI TAFE(국립기술대학교) Turner Hall에서 부교육감, 시드니 총영사관 교육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인턴십 수료식을 실시했다. 특성화고 51명 학생들은 호주 국립기술대학교(SI TAFE)와 전공별 13개 업체(용접, 통신회사, Sushi Bar 등)에서 현장실습 등 다양한 해외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인턴십은 특성화고 40명의 학생은 12주 동안 6주 영어교육, 2주 직무연수, 4주 현장실습으로 학생들은 실무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신기술을 체험하고, 호주 현지 타일협회, 조리협회와 경남교육청의 MOU 체결로 11명의 학생이 2주 동안의 현지 적응교육, 안전교육 후 협회에서 제공하는 취업처에 취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년도와 달리 듀얼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기능인으로서의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호주 인턴십은 세계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세컨 비자 취득을 위해 호주 정부에서 알선하는 현지 공장 및 농장에서 취업 후 세컨 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해외인턴십에 참여한 창원공고 김승현 학생은 해외인턴십을 통해 영어능력향상, 해외기술 습득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대 중심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에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있으며, 호주 현지 통신회사인 Vodafone에 취업이 확정되었으며 후배들에게도 꼭 열심히 노력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해외인턴십에 파견된 특성화고 51명 중 48명은 세컨비자 취득 후 현재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에 전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이 확정된 인원은 48명으로 94%에 육박 한다.

1명은 호주 현지 국립기술대학교 입학 예정, 2명은 귀국하여 군입대 및 현지에서 배운 영어 능력을 활용하여 공무원에 도전할 계획이다.